

## 영화 <그레이하운드> 감상문

국방정보공학과 2학년 2020032306 송민경

영화 <그레이하운드>는 대서양 전투가 주를 이루었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의 구축함과 독일의 잠수함 간의 해전을 담은 영화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장면과 각종 효과음과 음악이 함께 잘 어울려 영화를 보는 내내 전시 상황에서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완성도 높은 영화인 만큼 다양한 요소에 주목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항해학과 관련된 몇 가지 포인트들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첫 번째로, 항해 당직에 관련된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1일 3직제로 편성되는 항해 당직을 알기 쉽도록 장면 시작 전 ‘DOG WATCH’, ‘MORNING WATCH’ 등의 명칭과 근무 시간을 함께 제시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당직 근무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무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특히 전파탐지와 음파탐지 그리고 견시를 통해 독일 유보트의 위치를 파악할 때, 조그마한 실수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의 책임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당직사관으로서 항상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조함권을 인수하고 조타명령을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함장은 언제든지 당직사관으로부터 조함권을 인수할 수 있으며 조함권 인수는 당직사관에 의해 복창되어야 한다. 영화 속에서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크라우스 함장이 “당직사관, 지금부터 내가 조함한다.”고 하면서 조함권 인수를 선언한다. 이후 당직사관이 “지금부터 함장이 조함한다.”라고 복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타명령 또한 복창되어야 하는데, 크라우스 함장의 “키 오른편 015도 잡아!”, “현침로 유

지!”, “양현 앞으로 전속!” 등의 명령이 복창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온다. 지시하는 명령을 듣고 이행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복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장면들이었다.

세 번째로 상선을 피해가기 위해 ‘KICK 현상’을 이용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전타 초기에 함수는 선회궤적 안쪽으로, 함미는 바깥쪽으로 향하는 운동을 한다. 이때 함미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양이 바로 ‘KICK’이다. 좁은 구역에서 위험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함정을 위험물의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물이 보이는 쪽으로 강한 조타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영화 속에서 적함을 발견하고 사격을 하던 도중 상선이 접근해 오자, 사격을 중지하고 이를 KICK 현상을 이용해 피해 가는 장면이 나온다. KICK 현상에 대해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 궁금했었는데, 이 장면을 통해 KICK 현상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크라우스 중령의 함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이 감명 깊었다. 처음 임무를 맡는 신임 함장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훈련했던 대로 하라며 다른 사관들을 지휘한다. 이러한 노력에 처음에는 불신하던 장교들도 이후엔 믿고 잘 따르게 된다. 계속되는 전투에 잠과 식사도 포기하는 함장의 모습에 진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심적으로 힘든 부분을 부장에게만 털어놓는 장면에서 침착함 속에는 엄청난 고뇌가 뒤따랐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그레이하운드>는 대서양 전투를 생생하게 잘 나타내면서도, 여러 해군 표현이나 조함 용어 또한 적절히 사용해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였다. [항해학개론]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고, 영화를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이 이후 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